

IFWF 발간 등록 번호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 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이주 유형도 다양해졌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부모의 배경과 본인의 출생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국외출생 자녀 가운데 중도입국자녀, 국내·외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남한, 북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자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표 1-2〉 이주배경청소년 정의에 따른 유형 및 사회적 용어

부모배경 \ 본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배경 \ 본인출생	남한출생	남한 외 지역출생
부모 중 한명이 한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생 탈북배경청소년/ 탈북가정자녀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자녀
부모 중 한명은 외국인 다른 한명은 북한이탈주민		제3국행 탈북배경청소년/ 중도입국자녀

출처: 양계민 외. (2021). 재구성.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통계에 의존하는 현황은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현황에서는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는 2020년 기준 678,973명으로 2015년 보다 116,057명이 증가하여 20.6%가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둘째, 외국인가정 자녀(만 18세 이하)의 수는 2020년 251,977명으로 외국인 주민 전체의 11.7%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안전부, 2021).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은 2021년 기준 2,287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수로,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남한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숫자이다(교육부, 2021). 넷째, 미등록 외국 국적 청소년의 수치는 조사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추이를 보면, 첫째,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시기에 태어난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와 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외국(북한 포함)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이후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부모의 국적 취득을 계기로 증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가족형태가 1인 가구에서 다가구로 변화하면서 이들의 자녀인 외국인가정의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와 구성 변화로 지역사회는 이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생겼다. 지역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이 아닌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및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특성과 자원가용성을 고려한 지역형 사업보다 정부 주도 사업 서비스 제공이 다수이며, 사업의 획일성, 중복성, 정책대상 연령의 편중, 정책배제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고, 환류점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별성,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사회적응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에게 한정되었던 정책에서 이주민으로 확장하는 정책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로 다문화청소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 정책 기조는 법률, 정책, 사업이 변화해야 하며, 추진체계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이주한 공간에 머무르는 이주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함께 살아갈 정주민으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정책 기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정책 기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가치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정책 기조는 주거 및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중앙정부·인천광역시·인천시교육청·민간단체의 지원서비스, 다문화 수용성 사회 등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 기조는 생애주기에 따라 입국초기(언어, 관계), 학령기(학습), 청년기(진로, 취업)에 맞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 기조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가치적인 포용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체계적 지원 방향은 첫째, 건강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돌봄시설 이용 서비스 및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치적인 지원은 첫째, 지역사회에 소속감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등하고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신뢰감을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 출신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지닌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 특성, 경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인천광역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포용적 정책 기조를

사회통합, 생애주기, 인권 측면으로 살펴본 후, 체계적인 수단인 교육, 심리, 보건, 돌봄과 가치적인 수단인 정체성, 신뢰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전문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향점을 수렴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 및 인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쟁점사항과 전망을 통해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여 정책 기조의 전환된 지향점을 확인하였고, 해외 사례를 통해 전환 방향성을 되짚어 보았다.

제3장은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 및 지원기관 관계자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와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주배경청소년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발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4장은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 정책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고찰, 통계자료 분석, 심층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 고찰은 이주배경청소년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및 인천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증가추세를 비교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국제결혼가정의 국외 출생자이며, 두 번째 그룹은 외국인가정의 국내 출생자이고, 세 번째 그룹은 외국인가정의 국외 출생자로 분류하였다. 세 그룹으로 분류한 이유는 본인 또는 부모의 문화 변용과 모국과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요구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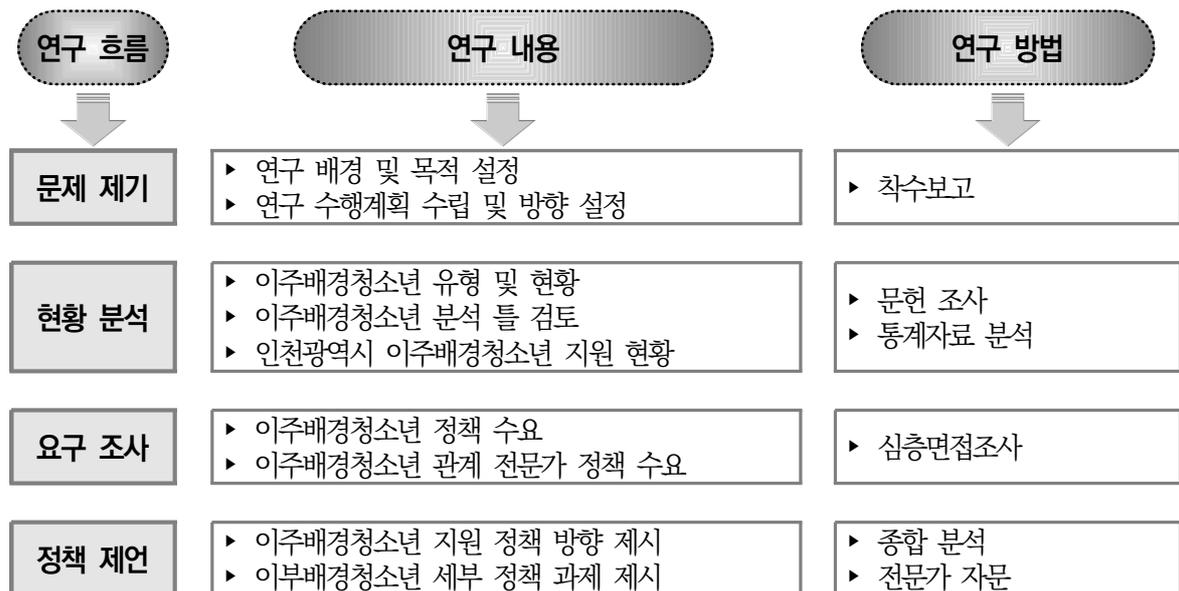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5명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 현황, 지원기관의 사업내용, 서비스 효과 및 정책요구를 확인하였다.

〈표 1-3〉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개요

구분	대상	내용
기관 관계자	레인보우스쿨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권 확보 방안 • 학교 적응 지원 방안 •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 •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교사를 위한 다문화수용성 교육 • 청소년 시민성 함양 •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 • 정체성 확보 • 이주배경자녀의 발달권 확보 방안
	비인가 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NGO 단체	
이주배경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청소년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청소년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청소년	

전문가 자문은 중앙 및 지역 전문가를 통해 인천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포용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연구수행 흐름



II. 이주배경청소년 특성과 지원 현황

1. 이주배경청소년 개념과 특성
2.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전망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4. 소결



II

이주배경청소년 특성과 지원 정책 여건 분석

1. 이주배경청소년 개념과 특성

가.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및 유형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인 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현안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은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도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청소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 혹은 북한에서 성장한 청소년,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출생하는 청소년 등은 국적과 국내 체류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이 혼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서종남, 2010),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대응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김도혜, 2012).

근래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아우르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003년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더불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이다(이용교, 2007).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12년 개정을 거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1〉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 복지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06.10.)

양계민 외(2020)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바탕으로 부모의 배경과 청소년의 출생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유형화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처럼 동일한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본인의 국적을 비롯해 한국어 습득 수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적응 정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인구 통계가 없어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 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양계민 외, 2021). 그 결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이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정부에 따라 파편화되거나,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립 및 시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증가하리라는 예측은 기정사

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증가가 점쳐진다.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동시에, 특정 구성원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표 II-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유형	부모 배경	본인 출생지	포함대상 및 특성	사회적 용어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다문화 청소년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 청소년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 본인의 국적은 외국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 자녀 포함 	외국인 청소년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 본인의 국적은 외국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 자녀 포함 	외국인 청소년
탈북배경 청소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 중 한명은 외국인 다른 한명은 북한이탈주민	제3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배경 청소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또는 부모 중 한명은 외국인 다른 한명은 북한이탈주민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서 출생 한 후 탈북한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출처: 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재구성.

인천광역시의 상황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광역시의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적 선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발굴,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논의의 시사점과 인천시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조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시민)화 문제, 이주배경청소년 제도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의 방향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사회 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시사해왔다.

〈표 II-3〉 이주배경청소년 선행연구 범주 및 내용

범주	내용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조사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해외사례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현황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 교육과 진로, 부모와 가족, 차별 문제, 부모와 가족, 청소년의 건강 및 심리
이주배경청소년 제도 및 지원 방안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및 지원 정책, 지원 사업 사례 발굴

1) 정체성과 사회적응 관련 특성과 수요 방향

청소년기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어린이와 어른, 두 국가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최대희, 2014).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적 소속감과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생산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워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경향이 자주 지목되곤

한다(김기현, 이재희, 흥혜미, 2013).

특히 청소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경제활동 상황에 맞추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송민경, 김진원, 2017). 또한 동화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교육의 경향으로 통상적인 학령기간 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차별’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조형숙, 2018).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 연구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이나 의식을 권유하기 보다는, 다른 성장 배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층적 정체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왔다(김기영, 2021).

무엇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정섭, 왕금미(2021)는 지난 15년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재분석하여 분류하였다.

〈표 II-4〉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 분류

연구범주	심리·정서	가족관계	환경요인	사회·문화	정책연구	계
연구 수	12	5	13	9	13	52

출처: 이정섭, 왕금미. (2021). 재구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배경에는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다양한 사회·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 문제가 비단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체성의 혼란과 부적응 문제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의 장벽이나 소외감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사례도 나타난다(이진석, 2014). 학급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을 곁돌게 되면서 학업 성적 역시 저조해질 수밖에 없으며 악순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들은 먼저 청소년들의 서로 다른 배경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 과정이 상이하기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도 차별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은주, 2021).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개인·학교·사회적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II-5〉 이주배경청소년 적응 문제의 대상 및 층위

개인	정체성, 건강, 심리, 부모, 가정, 사적인 차별 경험
학교	한국어, 학업 성취도, 친구관계, 진학·진로, 직업 교육
사회	지역연계, 사회참여활동, 시민의식, 지원기관, 정책, 법령

2) 심리와 정신건강 관련 특성과 수요 방향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진아, 이형실,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원만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학급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또한 적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도 한다. 학원이나 외부 활동이 적고 부모 역시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이주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주한 경우에 비해 심리적 곤란함을 더욱 많이 겪기도 한다(조혜영, 2012).

오승환, 좌현숙(2015)은 일반청소년의 우울감 요인으로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는 언어, 차별 문제가 또 다른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과 해외에서 살다가 중도 입국한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6〉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우울증 정도와 관련 요인

요인	연령	한국어 사용 능력	부모 관계 만족도	형제 관계 만족도	부모 출신국 관심	부모에 대한 자긍심	부모 출신국 언어 능력	학교 폭력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
다문화 청소년	○		○ (母)	○	○	○	○	○	○
중도 입국		○	○ (父)	○		○	○	○	○

출처: 오승환, 좌현수. (2015). 재구성.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차별의 경험을 주요한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가족 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화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차별이나 학교 폭력의 경험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3) 부모와 가족 관련 특성과 수요 방향

이주배경청소년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형제 관계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급 친구 및 교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관계를 형성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사정은 다르다. 학교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언어 문제로 담당 교사의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는 이전까지 쌓아온 대인관계 역시 이어가기 어려운 탓에 가정 내 관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보다는 기존에 사용해 온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나 가족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한다. 박봉수·김영순·최승은(2013)은 인천 지역에서 입국 2년 이내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부모를 심층면접 조사

를 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전수 및 매개하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친구 관계가 부족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친구와의 유대관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표 II-7〉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가 수행한 역할과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한 역할 비교

구분	부모가 수행한 역할	자녀가 기대한 부모의 역할
자녀 입국 전	물질적 지원 역할	정서적지지 역할
	통제자 역할	친부와의 교량 역할
	방관자 역할	상담자 역할
자녀 입국 후	문화 전수자 역할	문화 매개자 역할
	문지기 역할	문지기 역할
	갈등조정자 역할	갈등조정자 역할
	물질적 지원 역할	물질적 지원 역할
	정보제공자 역할	정보제공자 역할
	감시자 역할	친구와의 교량 역할

출처: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재구성.

이처럼 부모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별거를 자주 경험한다. 경제적 활동과 거주지 마련을 위해 부모가 먼저 국내에 입국한 뒤, 이주배경청소년 본인은 일정 시간을 두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족 전체가 입국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의 근무지가 먼 경우, 또다시 별거의 경험을 갖는다. 고은혜·배상률(201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배경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부모의 존재와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부모가 다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을 지원하거나(석희정, 하춘광, 2015),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를 발굴 및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교육과 진로 관련 특성과 수요 방향

대다수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암묵적 차별이나 학업 곤란을 경험한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국적이나 언어사용의 문제로 입국과 동시에 제도권 교육에 편입하지 못하거나 일반청소년 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조혜영, 2020).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고 뒤늦게 입학한 이주배경청소년들 역시 일반 교육 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성취는 높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도 적어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일부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레인보우스쿨과 같은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가 일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해진 학령기간 내에 한국어와 일반 교육 과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는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자주 나타난다(신은주,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교육지원정책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반면에 진로나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그 결과, 진로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 탓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회로 나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다보니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진로나 대학 진학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받지 못한다. 스스로 진로의식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오성배, 서덕희, 2012)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진아·김소형(2018)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요인을 네 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표 II-8〉 중도입국청소년 진로 결정 요인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흥미 • 내적동기와 자기 효능감
가정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거주 국가에서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 가족의 진로 기대와 정서적 지지
학교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관계와 학교 적응 정도 • 교사의 관심과 지원
사회·제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적성 탐색의 기회 • 체류자격에 대한 자신감

출처: 유진이, 김소형. (2018). 재구성.

유비·김기현(2015)은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진로의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면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일반 청소년과 동일한 방식의 진로탐색 과정을 권장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지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교육은 직업과 진학에 대한 정보 외에도 심리, 자존감,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참여와 사회자본 특성과 수요 방향

일부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근간으로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지목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은정, 이용승, 2015). 특히 부모의 사회자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현주·차윤경(2019)은 이주민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활동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반면 장은지(2021)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는 가정보다 학교 내 사회자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와 학급 내 학우

와의 사회적 관계는 학업 외에 자기 만족감과 진로의식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업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외에도 시민 사회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난희(2019)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일반 사회 활동에 주목하였다. 획일화된 적응 교육과 동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독려하여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교 밖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예원·박인권(2015)은 지방정부의 노력을 환기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민과 지역주민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할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은 물론 사회규범 준수 의식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2.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정착 전망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국내출생과 국외출생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본인 및 부모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 국외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경우, 국적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 정책적 수요 역시 상이하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양계민 외, 2021). 이에 본 연구는 각종 통계 중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의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자료들을 수합하여, 출생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1) 인천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집계 및 발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지칭한다. 이 통계는 지역별로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 국적 자녀를 구분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자로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조사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17,432명으로, 전국 275,990명 중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에 거주하는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국내출생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전국 합계인 14,344명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의 외국인 주민 총 자녀 수는 경상남도의 20,194명에 비해 약 3,000명가량 적고, 16,250명의 경상북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의 2~3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와 비교해 보아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9〉 광역 시도별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2020년)

(단위: 명, %)

구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합계	비율
전국	14,344	261,646	275,990	100.0
서울	3,297	34,220	37,517	13.6
부산	414	11,849	12,263	4.4
대구	337	8,833	9,170	3.3
인천	1,348	16,084	17,432	6.3
광주	186	6,659	6,845	2.5
대전	190	6,146	6,336	2.3
울산	180	5,719	5,899	2.1
세종	63	1,409	1,472	0.5
경기	5,422	68,462	73,884	26.8
충북	359	10,154	10,513	3.8
충남	609	15,318	15,927	5.8
전북	331	13,005	13,336	4.8
전남	315	15,307	15,622	5.7
경북	377	16,250	16,627	6.0
경남	535	19,659	20,194	7.3
제주	203	4,631	4,834	1.8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검색일: 2022.06.13.)

한편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자녀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자녀는 12,440명에서 17,432명으로 4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출생 자녀가 국외출생 자녀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0〉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자녀 추이(2016~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율 (2016~2020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758	821	972	1,118	1,348	77.8
국내출생 자녀	11,682	12,788	13,671	15,452	16,084	37.7
합계	0	0	0	0	0	40.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검색일: 2022.06.13.)

2) 인천 다문화 학생 일반 현황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통계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기준으로 현황을 공개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달리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자녀 출생지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광역시별로 비교해 보면, 2021년 인천의 다문화 학생은 10,050명으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6.2%를 차지한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외국인가정’으로만 국한할 경우, 2,863명으로 전국 28,434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11〉 교육부 광역시별 다문화 학생 통계(2021년)

(단위: 명)

지역	학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학제별 총계	다문화학생 총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국	초등학교	86,399	4,953	20,019	111,371	160,058
	중학교	25,368	2,773	5,809	33,950	
	고등학교	10,183	1,519	2,606	14,308	
서울	초등학교	8,120	812	4,161	13,093	19,368
	중학교	2,296	543	1,210	4,049	
	고등학교	1,202	276	575	2,053	

부산	초등학교	4,340	284	266	4,890	6,774
	중학교	1,127	129	89	1,345	
	고등학교	393	88	55	536	
대구	초등학교	3,089	194	367	3,650	5,145
	중학교	933	64	102	1,099	
	고등학교	291	43	50	384	
인천	초등학교	4,650	376	2,022	7,048	10,050 (6.2%)
	중학교	1,248	202	564	2,014	
	고등학교	604	105	277	986	
광주	초등학교	2,518	104	467	3,089	4,183
	중학교	594	50	150	794	
	고등학교	187	25	87	299	
대전	초등학교	2,134	94	186	2,414	3,303
	중학교	566	48	29	643	
	고등학교	205	29	11	245	
울산	초등학교	2,087	105	283	2,475	3,542
	중학교	654	76	87	817	
	고등학교	178	33	39	250	
세종	초등학교	474	44	44	562	808
	중학교	160	14	12	186	
	고등학교	50	5	5	60	

* 다문화학생 총계는 각종학교는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합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 06.13.)

한편 지난 6년간 인천 지역 내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간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는 2016년 3,985명에서 2021년 6,502명으로 약 63%이상 증가한 반면, 중도입국 자녀는 553명에서 683명으로 약 23%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다시 말해 인천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인천광역시 다문화 학생 추이(2016~2021년)

(단위: 명)

연도	학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율 (2016~ 2021년)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초등학교	2,984	3,521	3,925	4,264	4,392	4,650	55.8
		중학교	652	695	842	915	1087	1248	91.4
		고등학교	349	384	346	405	457	604	73.1
		계	3,985	4,600	5,113	5,584	5,936	6,502	63.2
	중도 입국	초등학교	361	355	366	367	391	376	4.2
		중학교	109	129	158	200	208	202	85.3
		고등학교	83	54	79	85	118	105	26.5
		계	553	538	603	652	717	683	23.5
외국인가정	초등학교	485	635	867	1235	1574	2022	316.9	
	중학교	119	150	204	276	424	564	373.9	
	고등학교	49	84	117	165	200	277	465.3	
	계	653	869	1,188	1,676	2,198	2,863	338.4	
총계		5,023	5,773	6,583	7,471	8,227	9,207	83.3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나.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거주 전망

총인구가 203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변화 및 학령인구 변화는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과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인천 인구 증감 요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3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인재 외, 2020).

인구 자연증가 감소세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예상된다. 인천 지역 합계출산율 2020년 기준으로 중구(0.82명), 동구(0.70명), 미추홀구(0.80명), 남동구(0.81명), 부평구(0.71명), 계양구(0.67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반면, 강화군(1.31명), 옹진군(1.13명), 연수구(0.95명), 서구(0.95명)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 증감의 감소세와 달리 유입인구 유지로 인천시의 전체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 유입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2004년부터 약 10여 년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인재, 2020).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공급하는 신규 주택 공급으로 남동구, 연수구, 서구는 유입인구가 높았던 반면,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등은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는 가운데, 유입인구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증가 및 정착

인천시의 전체 학령인구(만6~21세)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 감소했으며, 2035년까지는 약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배은주, 2020). 인천광역시 학령인구의 점진적 감소세에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은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앞서 살펴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조사들을 검토해볼 때, 향후 전체 학령 인구중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부 「교육통계」를 살펴봐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지역 내 정

책 수요자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표 II-13〉 인천 지역 학령인구(만6~21세) 변화 및 추계(2010~2035년)

구분	주민등록인구현황(명)		인천시 장래인구추계(명)		
	2010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인천	580,529	459,492	397,266	352,014	319,404
중구	15,243	20,680	20,188	18,103	16,363
동구	13,219	8,648	6,520	5,481	4,848
미추홀구	76,924	54,746	46,657	41,962	38,521
연수구	68,278	68,104	68,073	63,867	58,838
남동구	99,704	84,541	73,203	65,350	59,902
부평구	119,656	73,532	57,076	48,066	42,696
계양구	81,211	45,459	32,332	25,922	22,383
서구	93,811	94,300	85,506	76,353	69,599
강화군	10,119	7,432	6,042	5,395	4,875
옹진군	2,366	2,050	1,669	1,515	1,379

출처: 배은주. (2020). 재구성.

2021년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평구의 다문화학생 수가 1,97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구(1,715명), 연수구(1,654명), 남동구(1,579명) 지역 내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 2022).

〈표 II-14〉 인천 군구별 다문화학생 수

(단위: 명)

지역 유형	부평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계
국내출생	1,176	1,292	553	1,094	841	653	469	214	170	41	6,503
중도입국	104	123	111	123	74	48	72	9	15	5	684
외국인 가정	693	300	990	359	298	66	112	14	31	0	2,863
계	1,973	1,715	1,654	1,576	1,213	767	653	237	216	46	10,050
초등학교	1,424	1,233	1,139	1,160	834	535	413	155	126	29	7,048
중학교	402	364	337	290	218	175	135	58	24	11	2,014
고등학교	147	118	178	126	161	57	105	24	66	6	988
계	1,973	1,715	1,654	1,576	1,213	767	653	237	216	46	10,050

연보라 외(2021) 연구에 따르면 인천 다문화 학생의 군구별 분포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의 거주 위치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자는 군구별로 분포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은 지역 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이영민, 김수정, 2017). 이러한 현상은 인천광역시 주요 공단지역인 남동공단(남동구), 주안공단(미추홀구), 부평공단(부평구), 서부공단(서구)을 중심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높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서비스업과도 연계된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에 외국인주민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구별 다문화학생 주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국적(42.5%)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수구는 러시아(16.2%), 우즈베키스탄(13.9%), 중앙아시아(12.7%) 등 고려인 주민이 정착하면서 밀집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국적별 분포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주배경청소년 법률 및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이주배경청소년 법률 및 지원 정책

1) 법적 근거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혹은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러다 보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뉘어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내에 이주해 온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문화 학생과 귀국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는 ①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②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③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학생, ④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 이밖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학적이 없는 이유로 입학 및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에게 제도권 교육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한외국인의 정의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에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의 처우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대한 내용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5〉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 조항

법률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정의 -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한국인, 혹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부부 둘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로 이루어진

법률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p>가족으로 규정.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로 규정</p> <p>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는 교육 제공을 의무화</p> <p>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사회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지원</p> <p>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등 추진을 의무화</p> <p>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 - 학교생활에 신속한 적응,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취학 전 보육, 교육 지원,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 지원</p>
<p>청소년복지 지원법</p>	<p>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별지원 :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p> <p>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무화</p> <p>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여성가족부)</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19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p> <p>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귀국학생,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인 아동, 그 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학생의 입학·전학·편입학 인정 및 절차 간소화</p> <p>제98조의2 학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p>
<p>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p>	<p>제2조 정의 - 재한외국인을 합법 체류자로 정의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p> <p>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국가 및 지자체의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인권옹호 조치 노력 의무화</p> <p>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국가 및 지자체의 한국생활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p> <p>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국가 및 지자체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적응 지원</p> <p>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지자체의 다문화이해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 시정 등의 노력을 의무화</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원 사업

관계 법령이 다양하다보니 지원 대상, 관련 부처, 전달체계 역시 상이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통일부가 주도해 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중앙 부처별로 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은 1,481개 사업으로 그중 중앙부처는 116개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부처의 사업 가운데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분야 3개 영역의 정책과제 수가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사업비는 7413억 원 가운데 중앙부처는 5,919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전년 대비 1,199억 원이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영역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4개 영역에서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영역에 5개의 세부사업, 둘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영역에 4개의 세부사업, 셋째,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영역에 4개의 세부사업, 마지막으로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영역에 5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

〈표 Ⅲ-16〉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2022년)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명	예산	소관부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59,532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14,628	
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비예산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14,575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

④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53	여성가족부 교육부
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26,440	
①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2,942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22,946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	-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	552	여성가족부 외교부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8,125	
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30	교육부 여성가족부
②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강화	41	교육부
③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6,333	KOTRA 외교부
④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등)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1,721	고용노동부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10,339	
①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1,335	여성가족부 법무부
③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54	여성가족부
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교육부
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8,750	교육부

정책 추진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0개소(인천은 9개소)를 지원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바탕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지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정착·통합지원, 청소년 다문화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표 II-1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주요 사업

영역	주요 사업
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스쿨 지원 : 전국 23개소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을 도모 - 레인보우스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심리정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지원 - 언어 문제로 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역사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심리사회적응검사 개발
사회인식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과정, 예비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강화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다문화역량강화 과정 등 운영
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 정책과제 발굴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policy.do>)

한편 교육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일선 교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적응 교육 사업으로, 전국 365개

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총 6단계, 5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중도입국자녀 및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 외국인(F-1-52, F-2-2)등을 대상으로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출입국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표 II-18〉 중앙정부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

부처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 자녀 -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24세 이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6세~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도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자녀	18세 미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기관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policy.do>)

나.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조례 및 지원 정책

1)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서 인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자와 그 자녀를, ‘다문화 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조례 제2조).

또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제16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17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항(제7조)을 신설하였다.

〈표 II-19〉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022.07.19.)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지원의 범위)</p> <p>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p> <p>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p> <p>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p> <p>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p> <p>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7조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범주에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 편의 제공, 자녀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제8조에서는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20〉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22.01.13.)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지원사업)</p> <p>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 생활을 위한 응급구조 등 보건의료 6. 자녀 돌봄 지원 <p>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개정된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의를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목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포괄하였다.

제4조의2(사업)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둘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셋째,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개정된 조항으로는 제10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제12조 한국어학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2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1.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제12조(한국어학급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2) 담당조직 및 주요 사업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정책부서는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이며,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팀은 다문화가족정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시 특화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국인생활지원팀은 외국인정

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외국인 주민(근로자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 인천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지원 주요 현안에 관한 업무,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 고려인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시책사업은 ‘다문화가족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자녀성장 프로그램 및 부모 상담,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결정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22년 사업으로 첫 번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6개의 세부사업에 415백만 원, 두 번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으로 6개의 세부사업에 1,480백만 원, 세 번째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으로 1개 세부사업에 55백만 원, 마지막으로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2개의 세부사업에 1,681백만 원으로 총 3,631백만 원이 배정되었다.

〈표 III-22〉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2022년)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명	예산	정책부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631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415	
① 다문화청소년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6	가족다문화과
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	130	시교육청
③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100	가족다문화과
③ 다문화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5	미추홀구
④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1	미추홀구
④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3	서구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1,480	
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152	가족다문화과
① 이중언어 인재양성사업 내실화	6	연수구

②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285	가족다문화과
② 자녀양육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897	가족다문화과
② 다문화자녀 멘토링사업 추진	98	가족다문화과
② 다문화가족 발달장애 아동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42	가족다문화과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55	
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55	시교육청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1,681	
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1	시교육청
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1,680	시교육청

출처: 인천광역시. (2022). 2022년도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주요 지원 사업은 9개 군·구별 가족센터(계양구 거점센터 포함)와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 기관이다.

현재 가족센터는 기존의 두 센터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을 아우르면서 가족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지역 활동을 높이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표 II-23〉 가족센터 사업의 이주배경청소년 자원 분야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한국어 교육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운영 - 가족생활지도(부모교육, 자녀생활) : 만12세 이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 숙제지도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 학습 태블릿 PC(무상지원)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	- 발달장애 정밀검사 :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1인당 20만원 범위내) - 치료비지원 : 발달장애 치료비 지원(1회당 5만원, 연 20회 내외)
다문화자녀 멘토링 사업	- 1:1멘토링 :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1:1 멘토 - 멘티를 통한 학습 및 정서지원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 음악, 미술, 보드게임 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사업	- 행복플러스 프로젝트 : 진로 및 진학준비를 위한 부모교육 - 로봇꿈나무 교실 : 코딩 및 프로그래밍 및 체험관 견학 등

출처: 인천광역시(<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5075>)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정책사업 중 이주배경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사례는 많지 않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의 성격상,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내 구성원이자 자녀로 간주된다. 국제결혼가정 정책 중 청소년이 주요 수혜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이다. 7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연간 170명 대상)에게 1:1 멘토링 자원봉사자를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초 교과목 학습 지원 외에도 정서적지지, 교우관계,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 및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취약가족 학습정서지원’ 사업이 있다. 단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이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수혜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천생활가이드북을 다양한 언어로 발행·제공한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안내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신청·이용방법이나 쓰레기 배출 요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 외에 지역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다톡다톡(多talk茶talk) 사업은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3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을 시작으로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5,200명

(2020년 기준)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19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III-24〉 다독다독 프로젝트의 구성

구분		내용	대상	이용방법
개인 상담	내방상담	이주배경청소년, 가족 등 이주배경 가정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진로, 학업, 친구관계, 가족 등)들에 대해 상담 지원	9~24세	전화신청 및 내방신청 접수 후 진행
	전화상담	센터방문이 어려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 지원		
	찾아가는 상담	센터방문이 어려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원		
심리치료비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10만원까지 심리치료비용 지원	9~19세	초기면담 및 사례회의 승인 후 지원

출처: 계양구가족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다문화이해교육 확산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 교육 실현하고자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에 4개 사업, 다문화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에 8개 사업,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에 6개 사업, 다문화교육 지원 체제 강화에 6개 사업을 추진한다.

〈표 III-25〉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계획의 지원 사업(2022년)

(단위: 천 원)

정책과제명	예산	대상
1. 공교육 진입 지원	50,165	
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비예산	다문화교육 전담 인력 구성운영
②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지원	20,160	공교육 진입을 희망하는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의 학령기 아동

③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30,000	공교육 진입 전·후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학생
④ 징검다리과정 운영	5	초·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학생·학부모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2,590,700	
① 한국어학급 운영 지원	1,680,000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180,000	한국어 및 학습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③ 다문화 멘토링 지원	60,000	기초학력 및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
④ 다문화 통·번역 학습보조원 지원	200,000	한국어학급 대상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
⑤ 찾아가는 다문화 통역 지원	92,160	통역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다문화 학생·학부모
⑥ 찾아가는 다문화 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45,440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다문화 학생·학부모
⑦ 진로·직업 교육 지원	55,000	초·중·고 다문화학생(희망자)
⑧ 인천한누리학교 운영 지원	278,100	인천한누리학교
3.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231,126	
①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지원	비예산	전체 초·중·고등학교
②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운영	91,926	교원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③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110,000	학생, 교원, 학부모
④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13,000	다문화교육에 관심 있는 유·초·중등 교원
⑤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운영	11,200	초·중등 다문화학생
⑥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 홍보	5,000	다문화학생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306,660	
① 다문화교육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3,840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사회 다문화교육기관 등
②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1,800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위원으로 구성
③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5,580	전 기관
④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 지원	216,000	3개 학교 /10개 학교
⑤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운영	23,640	다문화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40명 내외 위촉
⑥ 다문화교육 정책연구용역 운영	55,800	초 중등 정책연구

이밖에 자체상담 지원 외에 지역 내 연계된 상담 및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심리치료비(9~19세 한정)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인천 지역 내 다독다독 연계 상담센터는 10개 곳(전국 102개소)이며, 연계 의료기관은 1개 소(전국 43개소)가 있다.

4. 소결

인천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출신인 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현안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인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탈북민가정의 자녀인 탈북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인 외국인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용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동시에 특정 구성원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전망을 보더라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총인구는 203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주배경청소년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전체학령 인구 대비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다문화 학생의 군구별 분포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의 거주 위치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군구별 다문화학생 주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국적(42.5%)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수구는 러시아(16.2%), 우즈베키스탄(13.9%), 중앙아시아(12.7%) 등 고려인 주민이 정착하면서 밀집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국적별 분포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천의 특수성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원 법령과 정책부처 역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뉘어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일선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부와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시책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의 일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져 ‘이주배경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추진 사업 사례가 많지 않다.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에는 개정하여 혈연 중심의 “다문화가족”을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주배경의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용어인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다문화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적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포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2. 이주배경청소년 실태 및 경향 분석
3. 이주배경청소년 기관 전문가 의견 분석
4. 소결



III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심층면접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집단과 관계 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해외에서 출생한 후 입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 나누어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이주배경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및 항목

연구 참여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에서 18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질문구성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기본으로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를 위한 질문과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 그리고 심리, 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심층면접 조사 영역과 내용

질문 영역	질문 내용
언어구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 엄마 나라 또는 아버지 나라의 언어 구사 여부 •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언어(모국어, 모어) 수준 • 언어로 인하여 어려움 발생 여부 • 언어학습을 위해 지금 필요한 점
교육 및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본국에서의 교육 정도 • 현재 재학 여부 •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사회문화 활동 참여 및 소속감 • 향후 계획 및 한국에서의 성공 가능성 • 학교 외의 가족센터나 민간단체를 이용해 본 경험
경제활동 (일/노동) 진로·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경험 • 구직경로 및 일터에서의 부당 경험 • 대학 진학 상담 여부 •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진로를 위한 경험
정서 및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삶의 목표 •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자아감 • 차별 경험 • 한국 정부의 정책적 혜택 경험 및 필요 정책
동료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친구와 학교 밖에서까지 연계 •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한국사회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 해결 방법 • 미래를 위해 준비 및 계획 •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 청소년 시설이나 가족센터, NGO 단체를 이용해 본 경험
인구 사회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거주 기간 • 한국 입국 사유 및 동기 • 국적 및 한국 체류자격 • 한국어 수준 • 성별, 연령 • 경제적 수준

2) 연구 참여자 특성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응답자는 총 18명이다. 국제결혼가정 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이 5명, 외국인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이 5명,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이 8명이다. 그 중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8명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위해 갔다가 현지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한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 나라에서 태어나 학령기 전에 귀국한 사례의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덜 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령기에 귀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백이 심하였다.

외국인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 중 해외에서 출생하여 학령기에 이주한 이주배경소년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공백이 커 학교생활 적응, 교우 관계,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공백이 있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 연구 참여자에 대한 상세한 개요이다.

〈표 III-2〉 유형별 이주배경청소년 연구 참여자 개요

구분	참여자	성별	국적	입국(출생)년도	학교 및 학년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	I-1	여	한국	2014	중학교 1학년
	I-2	남	한국	2019	중학교 2학년
	I-3	여	한국	2020	중학교 1학년
	I-4	남	한국	2009	고등학교 1학년
	I-5	남	한국	2007	중학교 1학년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이주배경청소년	II-1	여	우즈베키스탄	2011	중학교 1학년
	II-2	남	우즈베키스탄	2013	초등학교 3학년
	II-3	남	요르단	2004	초등학교 4학년
	II-4	여	카자흐스탄	2011	해광학교 5학년
	II-5	남	카자흐스탄	2013	초등학교 3학년

구분	참여자	성별	국적	입국(출생)년도	학교 및 학년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	Ⅲ-1	남	베트남	2019	고등학교 1학년
	Ⅲ-2	여	카자흐스탄	2017	고등학교 3학년
	Ⅲ-3	여	우즈베키스탄	2019	고등학교 1학년
	Ⅲ-4	남	러시아	2018	중학교 1학년
	Ⅲ-5	여	몽골	2010	중학교 2학년
	Ⅲ-6	남	미얀마	2019	고등학교 1학년
	Ⅲ-7	여	중국	2019	고등학교 1학년
	Ⅲ-8	남	이집트	2015	고등학교 1학년

가)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I-1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유학을 갔다가 같은 과의 여학생을 만나 결혼하였다. I-1는 현재 중학교 2학년으로 학교에서 부반장을 하고 있다. 교우 관계가 매우 원활하다. I-1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엘지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교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모두 어머니의 정보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I-1가 태어난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닐 계획이다.

I-2의 어머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아버지와 이혼 후 I-2는 베트남으로 갔다. I-2는 외갓집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는데 최근 베트남의 경제가 어렵게 되자 어머니는 I-2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I-2는 한국어가 미숙하여 학습적인 면과 교우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실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대처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I-3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2년 전에 귀국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I-3의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귀국하였다. 현재 부모님과 언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I-3은 필리핀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어의 미숙으로 교우 관계도 성적도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I-3은 제3국으로의 유학을 꿈꾸고 있다.

I-4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한국에 귀국하였을 때 외모 때문에 곤란한 질문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 곧 2학년이 되고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정하지 못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진로상담과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고 싶다고 한다.

I-5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러시아에서 태어난 초등학생이다. 한국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가족 모두 한국어로 소통하여 러시아어는 듣는 정도만 가능하다. 이중언어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자신이 국제결혼가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 외국인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II-1는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II-1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으로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한다. II-1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임원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우연히 스페인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흥미를 느껴 러시아에 사는 스페인어 선생님에게 스페인어를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다. 장차 외국으로 유학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II-2는 한국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아버지는 고려인이고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인이다. II-2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8살 때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고려인인지 궁금증이 많은 청소년이다.

II-3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노동자 자녀이다. II-3의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온 투자 이민자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을 한다. 한국에서 두세 번의 이사를 했고, 현재는 아랍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다. 한국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달라 불편

한 것이 많다. 특히 학교 급식이 편하지 않다. II-3은 축구 선수 000을 좋아한다. 성인이 되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요르단 선수가 아닌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II-4의 부모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이다. NGO단체의 도움으로 유치원 때부터 시각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수년에 걸쳐 혼자 이동할 수 있도록 익혀 놓은 거리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이지만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교통비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다. II-4는 성인이 되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 한다.

II-5의 부모님은 카타흐스탄 사람이다. 어머니 나라 언어인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라다가 최근에야 부모님이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자신이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정 형편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었다. 놀이터에서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과 놀면서 괴롭힘도 당하고 왕따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다)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III-1는 외국인가정 해외출생자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는 4년쯤 되었다. 부모님은 모두 베트남인으로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노동 이주를 하였고, III-1는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 반하여 동생과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00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어의 미숙으로 교과 학습의 한계와 일반 또래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나 사회활동 등에 공백이 보인다. 연기예술학과에 진학하여 연예인이 되겠다는 청소년이다.

III-2는 러시아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2017년 가족과 함께 입국하였다. 중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일반고등학교에 갈 수 없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지만 한국 학생들과 교류가 없고, 방과 후에도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다. 진로체험이나 상담 등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지 못하였

다고 한다. 다만 고려인 청년공동체에서 팟캐스트로 활동 중이며 미디어 관련 학과나 한국어 학과에 진학하여 통번역사가 되는 게 꿈이다.

III-3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으로 현재 여자고등학교 2학년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국하였는데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으로 배정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또래 한국 학생들한테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아 전학을 한 적이 있다. 한국어 미숙으로 교과 성적이 낮아 자존감이 떨어졌고,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방학이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컴퓨터 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III-3는 아직도 한국 학생들한테 당한 트라우마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컴퓨터 언어를 유튜브로 공부한다.

III-4의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미하일의 미래를 위해 2018년에 이주하였다. 이주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하였는데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러시아어권에서 온 이주배경청소년이 많아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인근의 학교 중 러시아어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비교적 적은 학교를 찾아 전학갔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는 청소년 활동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장차 배를 설계하는 설계사가 되는 게 꿈이다.

III-5은 몽골에서 온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다. III-5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한국이 마음에 들어 유학하고 있다. III-5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는 학교에서만 친한 한국인 친구들이다. 학교 밖에서는 만난 적도 없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없다. 방과 후에는 특별한 활동도, 갈 곳도 없어 부모님이 귀가할 때까지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 III-5은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

III-6는 미얀마에서 온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아버지는 목사이자 박사 과정 연구원이다. 학교에서 축구하는 친구는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친구도 없고 사회활동도 없다. 좀 멀더라도 한국 또래 친구들과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그는 주말에 아버지를 도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한다. III-6는 경찰대학에 가고 싶지만 경찰대학에 대한 정보는 접하지 못하였다. III-6는 다양한 진로체험이나 모국어로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Ⅲ-7은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로 2019년에 왔다. 처음 1년 동안은 한누리학교에 다니다가 원적 학교로 복교하였다. 주변의 또래들과 대화가 없어 자기가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것을 반 친구들도 모를 정도라고 한다. Ⅲ-7은 고민이 있을 때는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어 모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중국에서 온 친구들한테 털어 놓는다. 그녀는 일본 만화와 문화가 마음에 들어 일본으로 유학 갈 생각이다. 유튜브로 일본 만화를 보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Ⅲ-8는 이집트에서 온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송도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투자 이민을 왔고, 얼마 후 어머니와 형, 여동생과 같이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다. 부모님이 언제 사업을 접고 본국으로 귀국할지 모르는 체류의 불안정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학교의 공부보다는 이집트 학교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며, 서툰 한국어 때문에 실수할 것이 두려워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한국어만 잘하면 대학진학도, 친구 관계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가는 게 목표이다.

나.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및 항목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심층면접 질문구성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각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장에 관한 내용과 지원 내용 정도를 살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으로 정책현황, 지원기관 현황 및 사업내용 서비스 효과 및 정책요구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기관 전문가는 총 5명이다. 이랍권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담당자 1명, 인천시교육청(장학사) 1명, 한누리학교(교사) 1명, 대안학교(교사) 1명, 레인보우스쿨(교장) 1명이다. 다음은 전문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상세한 개요이다.

〈표 III-3〉 이주배경청소년 기관 전문가 연구 참여자 개요

참여자	성별	소속/전문영역	특징
전문가-A	여	인천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 지원단 장학사 • 초등교사 21년 근무 • 인천시교육청 혁신교육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강사 • 인천열음교육협동조합이사
전문가-B	여	상호문화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필리핀 현지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대안학교 교장 • 초록머리도서관 관장
전문가-C	남	레인보우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지원단체 운영 • 레인보우스쿨 운영 • 외국인 대상 목회
전문가-D	여	한누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육부장 • 이주배경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집필
전문가-E	여	한국이주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 시리아 난민지원센터 운영 • 이주노동자 상담전문가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진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 기획, 조사 준비, 조사 진행, 자료 처리, 분석 총 5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조사로 진행하였다. 사례조사의 특징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소수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측면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당사자와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인터뷰의 활용 범위와 목적, 그리고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연구 윤리를 지킬 것이며, 연구 도중 연구를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만 동의서를 받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와 소신에 대해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외적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심층면접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선택하게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약 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 연구진 2명이 동반 참여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로 바꾸어 읽기를 반복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가. 부모의 이주 동기

이주배경청소년 3개 그룹(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의 한국으로 이주동기를 분석한 결과 공통으로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이주 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본국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혹은 가정 형편으로 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유학을 갔다가 같은 과에 다니는 엄마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한국으로 왔어요.(I-1)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13년 동안 살았어요. 아빠하고 언니가 먼저 한국에 와서 살았고, 저는 한국에 2020년도에 왔는데 동생이랑, 엄마와 같이 왔어요. 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막내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I-3)

가정 형편 때문에 왔어요. 중국은 일자리도 없고 힘들어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 조선족이라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III-7)

저는 이집트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이집트로 보내요. 아버지 먼저 오셨는데 아버지가 자주 이집트에 오셨어요. 그리고 8년 전에 엄마와 형, 그리고 동생과 같이 왔어요.(III-8)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서 목사예요. 그리고 박사과정 연구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공부하셨고, 2년 전에 저랑 어머니, 동생 2명이 같이 왔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어요. 미얀마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III-6)

저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저의 미래를 위해 왔어요. 아버지가 러시아보다 한국이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문남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없는 청학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지금 청학중학교에 다녀요.(III-4)

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국어와 한국어, 모국어와 한국어 혼용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학령기 전에 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 초기에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말은 한국말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해요. 한국에 사니까 빨리 한국어 배우라고 해서. 학교에 가면서 한국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어는 다 잊어버렸는데 듣는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예요.(I-4)

우리 가족은 한국어를 다 잘해요. 어머니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고,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해서 지금도 잘 해요. 어머니도 이중언어 선생님이라 한국어를 잘 해서 우리는 다 한국말로 얘기해요. 저는 지금 오히려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I-1)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은 가정환경에 따라 좀 달랐지만 이주 초기에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본인의 한국어 습득에 따라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서 영어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로 하려고 노력해요. 아빠가 언니하고 나한테는 한국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잘 못 알아들을 때만 아빠가 영어로 얘기해요. 영어가 더 편하긴 해요. 동생은 필리핀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가족 모두 영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언니랑 필리핀 언어로 하는데 비밀이 있을 때, 친구들은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서요.(I-3)

엄마는 한국말 못해요. 그러서 엄마하고는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동생하고는 한국어로 얘기해요. 특히 동생하고 싸울 때는 다 한국말로 해요. 엄마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때는 한국말로 싸우는 게 편해요.(III-1)

그리고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중 이주 기간이 짧은, 즉 한국어 수준이 낮거나 모국의 음식 문화나 종교를 지키는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자는 본인의 한국어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모국어를 사용한다.

우리 가족은 모두 아랍어를 해요. 엄마가 한국말을 못해서요. 형과 동생은 한국말을 잘 하고 아버지와 저는 조금 해요. 그래도 집에서는 다 아랍어로 얘기해요.(III-8)

엄마가 한국어를 몰라서 집에서는 다 미얀마 언어로 얘기해요. 엄마가 가사일만 하고 한국어 공부 안 했어요.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영어로 얘기하고요.(III-6)

다. 한국어 학습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란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도구,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수 조건 등 다양하였다.

청소년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좋은 마음이 중요해요. 읽는 거 쓰는 건 잘해요. 관점 쓰는 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활은 편해요. 공부는 어렵고 숙제 이런 거 못하는 좀 힘들어요. 역사, 사회가 어려워요. 한국 단어 많이 들어가서(III-6)

한국어를 잘 하면 건강한 어른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집트로 돌아간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국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집트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거예요.(III-8)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해요. 한국어를 잘하면 친구가 많아질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III-1)

한국어를 모르면 친구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해도 생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친구와 사귄 수 없어요.(III-5)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에서 대학에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친구들은 한국어를 못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런 것을 보니까 한국어를 잘 해야 돼요.(미하일)

한국어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대학에 가려고 한국어 하고 영어만 공부해요. 수학은 못 해도 한국어 잘하고, 토픽 급수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NGO단체에 가서 TOPIK을 배우고 있어요.(III-3)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배웠다. 특히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자국의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사회 등 교과 공부도 배우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해석해 주고, 모르는 단어 알려주면서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Ⅲ-5)

온라인으로, 한국어 가르쳐 주시는 러시아 선생님한테 한국어 배웠어요.(Ⅲ-3)

저는 중3 때 한국말 잘하기 위해 한국노래만 들었어요. 저는 K-POP으로 한국어를 배워요. 노래를 좋아해서요.”(Ⅲ-1)

대부분 주말에 NGO 단체에 가서 한국어도 공부해요. 공공기관은 일요일에 하지 않아 불편하고 NGO단체는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Ⅲ-2)

학교 안에 방과후수업에 한국어 있어요. 공부 끝나면 한국어 교실에 가서 1시간 한국어를 배워요. 1주일에 2번 공부해요.(Ⅲ-3)

읽는 거 쓰는 건 잘해요. 관점 쓰는 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활은 편해요. 공부는 어렵고 숙제 이런 거 못하는 좀 힘들어요. 역사, 사회가 어려워요. 한국 단어 많이 들어가서. 마을엔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너무 좋아요. 한국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가까우면 좋겠어요.(Ⅲ-6)

학원은 지금 안 다녀서 학교 수업하고 ebs 수업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Ⅰ-4)

라. 학교 생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 시기와 언어 수준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였다.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에 놓여지고 공교육에 진입 하더라도 학교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최영미 외(2022), 양계민(2020)의 보고와 같이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의 미숙으로 인해 학습능력도 낮았다. 일상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수업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우두커니 있거나, 낮잠이나 유튜브를 본다 고 하였다. 특히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외모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 있을 때는 성적도 상위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속상해요. 필리핀에 다시 가고 싶어요.(I-3)

한국말 못하니까 친구랑 얘기 안 하고 밥 먹으면 책상에서 자고, 유튜브 보고, 혼자 있으니까 재미없어요.(III-1)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 교실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봐요.(III-2)

다른 애들은 운동도 하는데 우리 외국 학생들은 같이 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요.(III-7)

집에서는 이집트 음식을 먹는데 학교 급식은 고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너무 놀라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샤워해요. 그런데 한국은 다 같이 샤워해서 충격이었어요.(III-8)

중학교 1, 2학년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성적 신경 안 쓰고 학교에서 잠만 잤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나의 미래 생각하니까 꿈 이루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교과서 배우는데 지금 수업 50% 이해하는 것 같아요. 수업 너무 어려워요.(III-1)

반면,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중 이주 시기가 이른 학령기 전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친구가 많아요. 지금 부반장이예요. 반장 선거할 때 저는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반장은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반장이 되고 제가 부반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 부반장하는 거 좋아요.(I-1)

학교에 갈 때 집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가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도 만나서 운동도 하고,.. 한국어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다 저의 이주배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I-4)

마. 교우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친구란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반자로 여겼다. 국외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청소년 중 입국 시기에 따라 교우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학령기 전에 입국한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이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또래 관계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어려움 없어요. 절친 다섯 명 정도 있어요. 같이 군대도 같이 갈 친구, 동반 입대도 생각하고 그 친구 때문에 학교도 같이 가고 대학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그냥 오래된 친구.(I-4)

저는 지금 부반장인데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 없으면 안 돼요. 일단 시간이 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애들이랑 무작정 놀자고 하는데 친구들과 놀 때 가장 행복해요.(I-1)

그러나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청소년이나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의 미숙으로 교우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신들의 이주배경과 언어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데 불편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친구는 교실에서만 친절한 한국인 친구였다. 가깝지만 먼 한국 친구, 멀지만 가까운 모국 친구로 인식한다.

베트남에서 있을 때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하는 게 친구를 사귀는 데 좀 어려워요. 친구는 교실에서만 친구예요. 거의 말 안 해요.(I-2)

가장 필요한 거는 친구들요. 왜냐하면 친구가 있을 때 자신도 있고 한국말도 이 친구에게 할 수 있어요.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주변에 같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인 친구 만난 적이 없어요. 한국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인정했다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학교에서 동아리 해주면 좋겠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여도 괜찮아요. 저는 리더도 할 수 있어요.”(I-3)

학교에 같이 친구들과 놀 때는 스킨십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만 그래요. 교문에 나오면 끝이에요. 따로 연락하는 친구는 없어요.(III-5)

저 애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은데 못해요. 말하면 틀릴까 봐 약간 겁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찌지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III-6)

학교 친구들은 내가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것을 몰라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있어서요. 친구는 중국 친구들만 만나요.(III-7)

바. 다문화 수용성

과거보다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한국인에 대해 비 포용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김영란 외, 2020). 이주배경청소년들도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3개 그룹 모두 동일하게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어린 시절, 나의 출신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또래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따돌림, 그리고 외면을 당한 것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배경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묘한 차별의 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든 이방인 취급,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러시아말 몰라요. 한국어만 했어요. 그런데 놀리고 괴롭히고 때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II-5)

친구들 사이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요. 같은 반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같이 하고 싶어. 어울리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말 몰라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좀 불편해요. 아이들이 그냥 머리 때려요. 가끔 그냥 때려서 도망갔어요. 좀 아팠는데 괜찮아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운동할 때 가끔 같이 했어요. 체육 시간에 하는 거요. 같이 하면 기분 좋아.(I-2)

저는 원래 인천여고에 다녀왔어요. 인천여고에서 여자애들이 괴롭히고 왕따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연수여고로 전학 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한국 학생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III-3)

대부분 체육 시간에는 같이 운동을 하는데 체육 시간이 아닌 다른 활동은 같이 안 해요. 혼자 많이 해요.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하기 어려워요.(III-1)

조별 조사나 활동할 때 같이는 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발표 기회도 없어요.(III-2)

사. 신뢰 관계 및 정보 제공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한테 고민

을 털어 놓는 다고 하였다.

한국말 잘 못해서 대부분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베트남 통역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도와줘요. 그 통역사 선생님은 전화로 얘기해줘요.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속상해요. (1-2)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하고 얘기해요. 엄마나 아빠는 혼내기만 하지 제 얘기 안 들어줘요. 엄마하고 상담해도 제가 선택은 못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결정은 엄마가 해요. 담임 선생님이 따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개인 면담해 본 적 없어요. 상담실 선생님하고는 한국에 언제 왔는지, 한국 생활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만 얘기했어요.(1-1)

지금 저의 고민은 공부요. 친구들은 화장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반친구들 화장해요. 저는 공부만 잘하고 싶어요. 고민을 언니하고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대부분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나쁘게 행동하면 집에 와서 언니랑 얘기하는데 필리핀어로 해요. 언니도 저처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잘 이해하고 언니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요.(1-3)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 같이 다닌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요. 2학년 올라갈 때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학원을 지금 안 다니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친구들과하고 얘기하고 결정할 거예요.(1-4)

그러나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돈독한 모국의 친구나 NGO단체의 한국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하였다.

러시아 친구 중에 비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해결은 안 되지만 도움이 되어서 그래도 그 친구하고 자주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미하일)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미래가 불안해요. 자신도 없어요. 나도 몽골에서는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잘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친구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다 불안해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려고 하면 내 말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고,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친구한테만 말해요. 몽골에 있는 친구요.(III-5)

정보 제공자는 이주 시기와 부/모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 이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데 한국은 자녀교육 정보에 있어 어머니의 정보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최영미 외(2022)와 같이 학령기 이전에 입국하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은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나 가족센터, 학교의 선

생님이나 부모님이 얻는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었다.

LG 이중언어학교도 엄마가 신청해 보라고 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생하고 줌으로 수학하는데 엄마가 또 신청만 하자고 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I-1)

어렸을 때는 엄마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한국어도 배우고 활동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를 많이 줘서 많이 다녔는데 학교 들어가서는 가지 않았어요.(I-4)

여기에서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셨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잠깐 가족센터에 다닐 때는 가족센터에서 알려줬는데 요즘에는 안 다니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III-1)

하지만 이주 기간이 짧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모국 커뮤니티나 모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SNS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NGO단체나 모국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는 한국말 모르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봐요. 한국에서 사는 필리핀 사람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종류가 비슷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있고요. 엄마한테 그 분들은 언니이며 동생이라 고향과도 같은 거예요.(I-3)

원래 일반 유치원다녔어요. 근데 우리 그런 유치원이 있는지도 학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여기 카리다스 센터에서 수녀님이 넣어주고 찾아보고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부터 바로 다녔는데 지금 6년 동안 다녔어요.(디아나)

아버지 친구인데 아랍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마을엔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신청했어요.(III-8)

학교 선생님 외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온 엄마 친구들도 가끔 알려줘요.(III-5)

한국에 사는 고려인들은 페이스북이나 NGO단체 등에서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하고 싶거나 필요한 것은 많이 알 수 있어요.(미하일)

아. 지역기관 및 단체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라 지역 기관이나 단체 이용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자는 입국 초기에 대부분 가족센터를 이용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가족센터가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닌데다가 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가족센터는 몇 번 갔는데 지금은 안 가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녔어요. 원래 잘 안 다녔는데 5학년 때 '가치점프'라고 대학생들 와서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과외처럼요. 그래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놀러 많이 가서 좋아요. 에버랜드도 가고, 이번에는 제주도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I-1)

한국에 왔을 때 몇 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했어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나처럼 학생은 없어요. 다 외국에서 온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가요.(I-2)

3년 전에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마가 다문화가족센터 가져고 해서 다녔어요. 거기에서 한국어 배웠는데 이제 안 가요. 우리처럼 학생은 없어요.(III-1)

대전에 살 때, 어렸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체험도 하고요. 그런데 인천으로 이사 와서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가요. 어릴 때니까 그냥 굳이 내가 놀고 싶은데 뭘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당기지 않아서 우리도 다 크고 엄마도 일하니까 갈 수 없어요. 지금은 다니는 데는 없어요.(I-4)

토요일마다 다문화센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있어요. 언니랑 가요. 가깝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문화센터 말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센터 같은 곳에 있으면 기쁠 생각이예요.(I-3)

그러나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입국 초기에는 지역에 있는 NGO단체를 이용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정보도 제공받으며 자국의 친구들과 어울린다(김영란 외, 2020). 하지만 지역의 NGO단체들은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

은 여전히 하교 후에나 주말에 이용할 장소가 없다. 이는 다문화밀집지역에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토요일에 마을엔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여기는 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국제결혼가정 친구들이고, 우리는 말 못 해도 서로 이해해주니까 좋아요. 여기 오면 고등학생 누나와 멘토링도 해요. 멘토는 내가 실수해도 웃어주고 고쳐줘서 좋아요.(I-2)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주말에 NGO 단체에 가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자국의 청소년 동아리활동도 해요. 공공기관은 일요일에 하지 않아 불편하고 NGO단체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III-2)

우리 마을에는 도서관, 복지관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고, 연다 하더라도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 중 NGO단체 연구소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토픽반을 운영해서 거기에 가서 토픽을 배우고 있어요.(III-3)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 모이는 공간은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용해보고 싶어요.(미하일)

청소년센터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없어요. 친구들도 안 가는 거 같아요. 만약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한국 애들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용하고 싶어요.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요.(III-5)

자. 여가 활용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여가시간 활용은 학습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다. 여가 활용에 있어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가정 국·내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집에서 유튜브 봐요. 게임하고요. 엄마 올 때까지. 주말에도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학교에 가도 친구는 없고 집에 와도 엄마는 좀 늦게 퇴근해요. 핸드폰으로 봐요. TV가 없어요”(I-2)

아빠가 주말마다 오시는데, 회사가 천안에 있어서 숙소에서 사세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아빠한테 가요. 아니면 아빠가 인천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아빠하고 바다에 가기로 했

대요. 우리한테는 원래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는 친구들하고 약속했는데 큰일이에요.(1-1)

주말이나 시간이 있으면 이런 데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토요일은 그냥 쉬어요. 일요일에는 공부해요. 그냥 갈 곳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으니까요. 근데 학교에 있을 때도 외롭고 진짜 외로워요. 얘기하는 친구가 없어요.”(1-3)

단,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령기 전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유대할 수 있는 게임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

시간이 있다 하면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아요. 보통은 부평에 많이 가요. 부평이 제일 가깝고 할 게 많고, 여기 쪽에는 진짜 놀 거 하나도 없어요. 부평을 많이 가는데 카페랑 지하상가에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방 탈출 같은 것도 많고, 보드게임 카페랑이 많아서 좋아요.(1-1)

주말 빼고는 시간이 안 돼서 친구들하고 자주 못 만나요. 주말에는 공원에서 만나서 운동하고요. 친구들 만나면 청소년 공간들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딱히 이런 데보다는 그냥 피시방이나 놀이터 같은 데가 더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1-4)

하지만 청소년기에 입국한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모국의 친구를 만나거나 별다른 활동이 없어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일부는 대학에 가기 위해 한국어 공부나 교과 보충학습으로 시간을 보냈다. 한국어에 대한 부담과 교과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도 집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수행평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말에는 학교 수행평가 준비하고 그냥 잠자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 또 아랍 선생님한테 아랍어로 영어를 배워요. 공부공부공부(III-8)

고등학교 1학년이라 주말 빼고는 여가 시간도 많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집에서 공부해요.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7시,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학교를 한 8시쯤에 가는데 갔다오면 한 5시쯤이 돼요. 밥 먹고 숙제하거든요. 학원은 지금 안 다녀서 학교 수업하고 ebs 수업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1-4)

차. 멘토링 참여 경험

이주배경청소년 대부분 멘토링의 형태는 다르지만 멘토링 경험이 있었다.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멘토링 참여 경험이 매우 적었지만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어 및 한국어 TOPIK 공부를 멘토링으로 하고 있었다. 중학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또래 멘토링을 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 대학생과 멘토링을 하고 있어 멘토링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대학생 누나하고 멘토링도 하고 좋아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토픽도 공부하고, 누나가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III-6)

이집트로 돌아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한국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집트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대학에 가면 저는 이집트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마을엔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누나와 한국어 토픽 멘토링 해요. 멘토는 경기대학교 누나인데 도움이 많이 돼요. 기대돼요.(III-8)

어렸을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멘토링 해요. 영어하고 수학 배우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I-1)

고등학생들과 멘토링을 하는데 재미있어요. 멘토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학생과 1:1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다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친구도 사귄 수 없어요. 그리고 따돌림 받아요. 멘토링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멘토는 우리를 잘 이해해줘서 좋아요.(III-1)

누나와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누나가 없어요. 멘토 누나는 내 누나 같아요. 누나를 만나서 얘기하면 자신감도 생겨요.(미하일)

멘토링 좋아요. 제일 재미있어요. 미술 시간에 대학생 언니가 와서 블로그로 맞추는 법이나 이제 형태를 만들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업도 했었거든요. 이만한 블록 같은 걸 조립을 해서 내가 상상하는 걸 만드는 수업도 했었어요. 멘토는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좋았어요.(디아나)

카. 봉사활동 경험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경험이 없었지만,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 자국의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려인 봉사단에서 활동했어요. 거기서 내가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려인 초등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멘토링을 했어요.(Ⅲ-2)

미얀마에서 정치에 참여해본 적이 있어요. 미얀마는 종교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 교회에서 주말에 봉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교회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형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은 저를 도와주고요.(Ⅲ-6)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활동 방경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사회참여 활동 안에서 시민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좋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학교도 가다 안 가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기회가 있다면 베트남에서 오는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한국 문화도 설명해주고 싶어요.(Ⅲ-1)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예요. 이런 센터에서 하면 해 볼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친구한테 나 영어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영어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면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있어요. 이 동아리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 돼, 영어 신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 해보면 할 생각은 있어요. 필리핀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맺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학교랑 연결해서 내가 같이 가자 그럼 내가 필리핀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 이런 거에 있으면 참여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영어 동아리랑 친구들 만드는 동아리라면 리더도 할 수 있어요.(1-3)

봉사활동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움으로써 행복을 찾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꼭 하고 싶어요.(Ⅲ-3)

내가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멘토링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멘토링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집트 학생이 있으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

쳐줄 생각도 있어요.(III-8)

타. 국가 정체성

국제결혼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한국인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 같아요. 제가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것을 친구들은 믿지 않아요.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고려인이기 때문에 외모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국인이니까요. 한번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I-1)

외국인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나의 출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나의 이주배경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최영미 외, 2022). 즉,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점 나의 출신을 알고 나서는 모국의 정체성을 점점 알아갔다.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자랐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즈베크에서 온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외국인이고 제가 외국인 피가 있는 걸 알았어요.그 때부터 러시아어도 배우고, 우즈베크 음식도 먹고 있어요.(II-2)

부모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왔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아이들하고 자라서 내가 왜 외국인인지 몰랐어요. 누랑 둘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나라라고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그런 거 계속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말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애들이 많이 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II-5)

그러나 외국인가정의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달랐다. 종교,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본국의 정체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한국인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갖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친구한테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의 음식도 다 맛있고, 엄마도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고 좋아해요.(Ⅲ-5)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한국 친구들과도 잘 놀고 친구들이 집에 오면 엄마가 갈비도 구워주고, 치킨도 사줬어요. 저는 한국이 불편하지 않아요.(Ⅱ-3)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의 종교나 언어, 음식문화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나 음식, 생활 습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모국의 정체성으로 거주하다가 거주기간이 길어도 자국의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그냥 한국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집트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요. 기도 시간도 지키고, 라마단도 지켜요. 집에서 음식도 다 이집트식으로 먹고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다 만들어 주세요. 급식이 좀 힘들어요.”(Ⅲ-8)

파. 필요한 정책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대학 진학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 체험이라고 답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 찾기,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계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고3 생활 진로·진학 결정을 위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을 원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대학 진학 전형이 다르다.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예요. 필리핀하고 같이 이제 교류한다면 필리핀에 있는 학교랑 연결해서 리더도 할 수 있어요.(1-3)

저는 한국어 멘토링하고 싶어요. 한국 멘토 누나는 저한테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한국 친구랑 같이 하는 거 있으면 가고 싶어요. 멘토링 같은 거 많이 만들면 학교 공부 도와 주면 갈 거예요.(1-2)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로에 대해서예요. 대학의 과라든가 아직 진로를 안 정해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교 어디에 갈지 원래는 기계 같은 것 만지려고 하다가 근데 어려워서 안 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서. 상담은 많이 안 해봤는데... 상담은 학교가 제일 편하긴 해요. 진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받을 생각은 있어요. 대학 입학 설명 회의를 하는데 입시 관련된 걸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서 한다면 이라면 가까우면 가볼 거예요.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 주변이면은 할 마음 있어요. 진로 찾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밖에 다른 거는 뭔가 가긴 좀 그런 것 같아요.(I-4)

외국인가정의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진학하여 한국어 TOPIK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다문화 전형’ 등의 특별 전형도 다양해져 각 학교의 진로담당 교사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외국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진학상담이에요. 하지만 딱히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혼자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데 컴퓨터 언어를 러시아어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컴퓨터 언어. 자바스크립트 집에서 책보면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III-3)

지금은 대학에 가는 거 말고는 특별한 고민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많이 도와주세요.(III-6)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갈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는 빨리 자라고 하셔서 자는 척 하면서 조용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III-5)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너무 늦게 진학을 준비한 것 같아요. 대학에 가려면 토픽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지금 토픽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토픽시험 봐서 대학가고 싶어요.(III-2)

저는 토픽 3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급 가지고는 서울대학교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가고 싶어요. 건물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학에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토픽이 가장 중요해요.(III-8)

3. 이주배경청소년 관계 전문가 정책 수요

가. 교육격차 해소 방안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이들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습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을 꼽았다.

모든 대상 학생에게 부진요인에 따라 맞춤형 학습 처방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격차가 발생했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개별 맞춤형으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요.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맞춤형 학습이에요.(전문가-E)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다문화밀집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생 간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전문가-D)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완비를 들었다. 학생 간 격차를 줄이려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자세한 안내와 함께 교육비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의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에 어두운 이주배경청소년한테는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교육비지원도 해주고요.(전문가-D)

나. 학교 적응 지원 방안

이주배경청소년이 입학하면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심지어 위축된 상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심층적·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는 모두 한국인으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어 모국어 소통이 가능한 심리상담사 배치가 필요하고 한다.

이주하고 오면 한국어보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심리적 위축감이거든요.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위축되어서예요. 언어와 정서 때문에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원을 배치해야 해요. (전문가-A)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해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 다문화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교내에서도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한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부터 급식실 선생님, 양호 선생님 등 모두 다문화이해 교육도 필요해요. 애들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문화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도요.(전문가-A)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 문제가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보고 문화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하여야 한다. '상호(inter)'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 간의 만남과 접촉,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우리 시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상호관계, 상호작용, 교류를 장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시민교육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해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전문가-C)

다.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규교육과정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다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실 운영을 지지하였다. 이중언어 교실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별 다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으로 교육에서 소외·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모국어 능력을 지키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언어 환경이 중요해요.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모국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이탈도 방지할 수 있고요.(전문가-B)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 교육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다양화에 따른 학생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이 마련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학생의 다양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교체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배움의 속도는 다르지만 성장의 기회는 평등해야지요. 특수교육처럼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개별화 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별형 교육이 필요해요. 개별형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학생별 맞춤형 교육에 관한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해 학교에 권한을 부여해야 가능해요.(전문가-D)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활동할 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가 서툰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 소외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는 순간 소속감을 잃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교실에서 활동할 때 언어가 서툰다고 친구들이 끼워주지 않고 차별하는 거가 제일 안 좋은 거 같아요. 포용이라는 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자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실수를 해도 실수라고 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는 분위기로.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도요.(전문가-E)

라. 교사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조건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변인들이 편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강화되어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나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들 대상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가정 인식개선이 필요해요.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인에 특별히 배려하거나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교대나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전문가-D)

연구 참여자 전문가-A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주배경청소년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의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먼 나라 얘기고 그냥 세계시민 교육 정도로 생각하세요. 교사가 먼저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이 필요해요. 언제 어디에서든 받아들일 수 있게요.(전문가-A)

이주배경청소년의 편견 없는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와 상호 평화로운 관계 형성 능력 신장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교육은 필수이다. 학생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문화와 인종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함양과 더불어 인류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함을 논하였다.

우리 교사들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다양한 다문화학생을 대하지만 똑같이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본인이 많이 만나고 경험해야 길러지는 게 감수성 같아요.(전문가-D)

마. 청소년 시민성 함양 교육

연구 참여자 전문가-A는 일반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려면 내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천해야 하는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임을 언급하였다.

시민성이라는 게 내가 내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많아져서 교실에서 쉽게 만나고, 부딪치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한다면 학생들한테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지요.(전문가-A)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올바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필요한 건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해서 가르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시민 교육의 교육과정 자체를 윤리 교과, 역사 교과와 엮여서 하는 거지요.(전문가-D)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면 안 되며, 이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인권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인성적 경험도 노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인권교육도 필수지요. 인권에서 문제가 권리 행사도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일반 아이보다 좀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갭을 채워주는 정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맞춰야지요. 모든 정책에 이주배경청소년을 다 넣는 거예요.(전문가-D)

바. 진로상담 및 취업연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지원 사업, 다양한 직업탐색 및 진로 재능 지원 사업을 위한 지지체계 강화사업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 또한 학교에서 채울 수 없는 것, 즉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에 있어 진로진학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연계 다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에 맞는, 특성에 맞는 아이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매칭, 멘토링 매칭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엮어주는 거지요.(전문가-A)

연구 참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현장 경험을 통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견인 제도는 어떤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멘티:Mentee)을 지도, 코치, 조언하면서 멘티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의 후견인 제도 같은 걸 하면 좋겠어요. 원래 멘토라는 게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잖아요. 멘토 대학생 형이나 오빠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잖아요.(전문가-B)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간접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언어가 서툴다 해서 서비스에서 배제하면 안 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중요하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인증제도가 있어요.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꼭 가서 체험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해요.(전문가-A)

사.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 국가와 함께 협업하고 연대할 때 비로소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국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자국의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지원 방법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활동가를 배치하거나 공간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요.(전문가-A)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서비스권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기본법, 국제아동보호법, 난민법, 외국인주민조례 등등 수많은 법과 조례가 있지만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이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요. 복지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전문가-E)

이주배경청소년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중 하나는 각종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계 향상, 사회참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금은 좀 느슨한 커뮤니티로 등록하신 아랍 여성분들만 지금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일요일에 공부방 하고 있는데 교사 수급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 이런 공동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해요.(전문가-E)

아. 방과 후 활동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들 수 있도록 타인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로의 시민활동은 미래 시민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역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올바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활동참여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시 교육과정과 사회활동을 엮어 운영하고, 이때 전담인력배치와 인건비 예산, 유관기관과의 연대 필요성,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한다.

청소년 활동에 있어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데요.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필요해요. 이때 전담 인력 배치도 인건비 지원도 되어야 해요.(전문가-A)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한국의 문화 언어 교육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미래 시민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소년끼리 교류하는 건 없어요.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 주도적으로 주제도 정하고 스스로 기획하여 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도 갖고, 그래야 시민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전문가-B)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모두 국가가 내려주는 것으로 교육과정도 똑같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과 차이가 존재한다. 인천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여 교육청과 지자체는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연계의 일환으로 마을연계 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7차 교육과정부터 지역 내 교육과정 지역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마을이 아이들의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스템과 학교 의사 구조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 내 구성된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전문가-A)

자. 이주배경자녀의 발달권 확보 방안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들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을 위해 지역 의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는 한국인의 중위소득에 해당하거든요. 무조건 중위소득을 내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자녀들도 발달지원 문제를 체크해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녀는 아동의 발달지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아요. 긴급지원도 안 되고요.(전문가-E)

연구 참여자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양육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자녀의 한국 교육시스템과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학부모 교육도 저는 학교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학생만 통번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상담까지 지원해야 하고, 지금 학생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학생과 연관된 양육자나 마을활동가들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 대상이에요. 학생과 같이 가는 게 맞아요.(전문가-D)

연구 참여자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여도 사회성이 부족하고, 언어로 인한 학력 저하 등을 겪기 쉽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어린이집에서 인지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적 발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 진입하여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초적인 복지 지원이 있잖아요. 보육비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주 아동들한테 보육비라든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경험한 아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했을 때 갈등들도 훨씬 덜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요.(전문가-E)

차.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지만 기존의 청소년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공간 마련은 딱딱한 학교의 분위기보다 개방감과 자유로움으로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 학교에서의 돌봄과 마을에서의 돌봄을 결합한 방과 후 활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때 마을에 있는 자원, 정보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와 마을,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 기관이나 활동할 수 있는 자리도 중요 하지만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같이 지낼 공간,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청소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청소년 적용 공간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시민교육이 일어나는 거지요. (전문가-A)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돼 있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마을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의 돌봄이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의 돌봄과 연결되는 거지요. 학교와 마을이 결합한 마을학교요. 학교와 마을은 결합할수록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거예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어요. 학교는 마을을 품어야 하고, 마을은 학교를 품어야 해요. 학교와 마을이 무조건 같이 가는 거지요.(전문가-B)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의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자녀 양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하여 마을의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주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끌고 이주자의 존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학습자를 포함하여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민자들이 NGO단체나 각종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 사업은 길게 봐야 하는데 마을에서 이주배경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만큼이나 주변 환경도 중요하니까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학부모를 위해서는 재정착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해요.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학생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을 더해서 마을에도 지원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전문가-A)

4. 소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주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여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분석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주 동기는 공통적으로 부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부모님의 일자리 및 직업을 위한 이주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이주였다.

둘째,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주배경에 따라, 그리고 이주시기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 한국어와 모국어, 모국어를 사용한다.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입국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는데, 국외에서 출생하여 학령기 이전에 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며, 외국인 가정 중 국외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과 종교 등의 영향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일반적으로 이주 초기에는 모국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본인의 한국어 습득에 따라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다. 그리고 외국인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중 이주 기간이 짧은, 즉 한국어 수준이 낮거나 모국의 음식 문화나 종교를 지키는 외국인 가정 국외 출생자는 본인의 한국어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모국어를 사용했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란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도구,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수 조건 등 다양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다문화 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배웠다. 특히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자국의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사회 등 교과 공부도 배우고 만족도도 높았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 시기와 언어 수준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

였다.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에 놓여지고 공교육에 진입하더라도 학교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의 미숙으로 인해 학습능력도 낮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수업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외모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중 이주 시기가 이른 학령기 전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친구는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친구는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반자였다.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 중 입국 시기에 따라 교우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전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이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또래 관계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의 미숙으로 교우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신들의 이주배경과 언어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데 불편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친구는 교실에서만 친절한 한국인 친구였다. 가깝지만 먼 한국 친구, 멀지만 가까운 모국 친구로 인식한다.

여섯째, 연구 참여 이주배경청소년들도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과거보다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한국인에 대해 비 포용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어린 시절, 나의 출신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또래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따돌림, 그리고 외면을 당한 것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배경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묘한 차별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든 이방인 취급,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일곱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어머니

의 정보력에 의존하였다.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외국인 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의 친구나 NGO단체의 한국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는 이주 시기와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 이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데 한국은 자녀교육 정보에 있어 어머니의 정보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최영미 외(2022)와 같이 학령기 이전에 입국하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나 가족센터,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얻는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이주 기간이 짧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모국 커뮤니티나 모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NGO단체나 모국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라 지역 기관이나 단체 이용 경험이 다르다.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자는 입국 초기에 대부분 가족센터를 이용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가족센터가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닌 데다가 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입국 초기에는 지역에 있는 NGO단체를 이용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정보도 제공받으며 자국의 친구들과 어울린다(김영란 외, 2020). 하지만 지역의 NGO단체들은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여전히 하교 후이나 주말에 이용할 장소가 없다. 이는 다문화밀집지역에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홉째, 여가 활용에 있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였고, 이주배경에 따라서 숙제나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였다. 단, 국외 출생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령기 전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입국한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의 친구를 만나거나 별다른 활동이 없어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일부는 대학에 가기 위해 한국어 공부나 교과 보충학습으로 시간을 보냈다. 한국어에 대한 부담과 교과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도 집에서 공부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여가시간 활용은 학습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가 된다.

열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체성은 가정 환경과 이주 배경에 따라 다르다.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한국인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었다. 외국인 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나의 출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나의 이주배경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최영미 외, 2022). 즉,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점 나의 출신을 알고 나서는 모국의 정체성을 점점 알아갔다.

그러나 외국인 가정의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달랐다. 종교,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본국의 정체성이 점점 열어지면서 한국인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의 종교나 언어, 음식문화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나 음식, 생활 습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모국의 정체성으로 거주하다가 거주기간이 길어도 자국의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다.

열한째, 이주배경청소년은 멘토링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멘토링 경험을 하였다. 국외 출생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멘토링 참여 경험이 매우 적었지만 국

내외 출생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어 및 한국어 TOPIK 공부를 멘토링으로 하고 있었다. 중학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또래 멘토링을 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 대학생과 멘토링을 하고 있어 멘토링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열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의 봉사활동 경험은 다르다. 다문화가정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 가정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경험이 없었지만,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 자국의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활동 환경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사회참여 활동 안에서 시민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열셋째,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대학 진학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 체험으로 나왔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 찾기,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계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진로·진학 결정을 위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을 원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대학 진학 전형이 다르다.

외국인 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진학하여 한국어 TOPIK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다문화 전형' 등의 특별 전형도 다양해져 각 학교의 진로담당 교사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외국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다.

나.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정책 분석

첫 번째,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격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시기와 언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

한 학습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간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두 번째, 학교 적응 지원 방안으로 언어 소통이 가능한 모국어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교사 및 종사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보고 문화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할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은 다국어, 이중언어 교실 운영하여 학교급별 다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다양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교체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 가질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나타났다.

네 번째, 교사 다문화이해 교육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나 학부모 대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문화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편견 없는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와 상호 평화로운 관계 형성 능력 신장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교육으로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청소년 시민성 함양 교육 방안은 일반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교육,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권 평화 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는 진로진학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연계 다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현장 경험을 통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의 직·간접 진로 체험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체성 확보 방안은 모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국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

안과 사회서비스권 보장,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국가별 안전망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방과 후 활동 지원에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들 수 있도록 타인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치활동 기회 제공, 건강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간 교류프로그램 지원, 학교와 마을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연계 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이주배경자녀의 발달권 확보 방안은 건강권과 발달권을 위해 지역 의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 양육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자녀의 한국 교육시스템과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양육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열 번째,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학교와 마을,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을학교 운영, 학부모가 마을의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IV.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1. 추진 방향
2. 정책 과제

● ● ●

IV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제언

1. 추진 방향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포용적 지원을 위한 문헌고찰과 통계분석을 시행하고, 인천의 이주배경청소년을 3개 그룹과 이주배경청소년 기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첫째,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통합, 생애주기별, 인권 지원 등 다양한 수요가 예상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수를 비롯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청소년의 수가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사회구조 변화를 가장 빠르게 경험하게 될 광역시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만 지원할 뿐 이주배경청소년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가족센터와 지역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며, 지역

내에서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향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 13개 영역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공통된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였고, 이와 달리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징과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에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이 부족하고, 이주배경청소년 특성과 유형에 따른 새로운 정책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정책 추진 방향을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정규 학교 이탈방지 및 진로지도 방안’,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표 Ⅳ-1〉 인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영역 및 전략과제

영역	전략과제	세부과제
정규학교 이탈방지 및 진로지도 방안	①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	①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② 통합적·체계적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
		③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	① 후견인 제도 및 멘토링 지원
		② 학생들의 직·간접 진로 체험활동
		③ 상급 학교 진학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취학 전후 자녀 기초학력 지원	①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②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③ 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지원
	④ 학교 적응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① 기초학력 저하 방지 방과 후 멘토링
		②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
		③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방안	⑤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	① 모국어 심리상담 지원
		②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배치
		③ 심리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⑥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지원	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② 사회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기회 제공
		③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수용성 증진 방안	⑦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① 교사 및 종사자 다문화교육 확대
		②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③ 포용과 배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⑧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	① 다문화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② 선주민·이주민 교류프로그램과 소통공간 마련
		③ 국가별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 정책 과제

가. 정규학교 이탈방지 및 진로지도 방안

1)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

이주배경청소년이 정규학교를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교육 생태계 차원에서 인천지자체와 인천시교육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문화의 차이, 언어의 미숙으로 인한 또래 형성의 어려움, 교과학습의 격차로 학급이 올라갈수록 정규학교 이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정규학교를 이탈할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장차 그로 인해 사회적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가)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과정을 운영

지역교육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규학교 이탈 방지를 위해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와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학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기회에의 참여가 공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은 조기 졸업이 가능한 탄력적 운영을 해야 한다. 이는 학교 간 연계 및 통합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유연한 교육 과정 운영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일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이 잦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언어 수준을 알 수 있는 평가지를 개발하여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학생의 언어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반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실은 그 학생의 정체성 교육이자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시민학교의 효과가 있다.

나) 통합적·체계적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교육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규학교 이탈 방지를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형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별성,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형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교육청은 이중언어교실만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파견하고, 다수의 언어가 아닌 소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한 개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청에서 통합적·체계적 개별형 교육과정의 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 전반에 관한 로드맵을 세우고, 그 책임을 교육감과 교육장이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학생별 맞춤형 교육에 관한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해 학교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다)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규학교 이탈 방지를 위해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서 양육자란 이주배경청소년을 양육하는 학부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까지 포함하여 돌봄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나 양육자의 교육은 NGO단체가 맡아 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정부는 기존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양육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때 양육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증점으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양육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양육방법과 기술을 터득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학습된 지식, 가치 태도들이 내재화되어 결국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이어지고, 이는 곧 자녀의 자존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킨다.

2)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를 위해 교육청-기초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입학 정보나 취업 정보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지원 사업, 다양한 직업탐색, 진로 재능 지원사업을 위한 지지 체계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학교 교육의 혁신과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가) 후견인 제도 및 멘토링 지원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 연계를 위해 후견인 제도 및 멘토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단계, 문화적 특수성, 가정여건과 개별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전인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후견인이란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연계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거버넌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발굴과 연결을 시도하면서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나) 학생들의 직·간접 진로 체험활동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직·간접 진로 체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설계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과 연계를 통하여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구상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진로교육법」을 제정('15.6.22., 시행 '15.12.23.)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로정보 부족 및 진로체험의 부족으로 인한 구체적인 경

힘이 부족하다.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간접으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기관, 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학교 진로체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하여 범사회적인 진로체험제공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조업체, 관공서, 방송국, 공항 등의 직장 탐방 및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직업 및 진로 탐색에의 관심과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다) 상급학교 진학지도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고, 각 학교에는 진로 진학 지도 담당 교사와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와 함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 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이해, 커리어넷 검사, 커리어넷 검사를 통해 1:1 진로상담,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중 언어 강점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주는 장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가정 내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정보력 부족으로 학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담당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으므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기반을 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진로·진학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상담의 대상으로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진로교육자료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표 IV-2〉 정규학교 이탈방지 및 진로지도 방안 전략과제 및 지원로드맵

전략과제	세부과제	지원로드맵		
		단기	중·장기	수행기관
① 정규학교 이탈 방지 방안	① 다국어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		지역교육청
	② 통합적·체계적 개별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교육청
	③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방정부
② 진로상담 및 취업 연계	① 후견인 제도 및 멘토링 지원	○		지방정부
	② 학생들의 직·간접 진로 체험활동		○	지방정부
	③ 상급 학교 진학지도		○	지방교육청

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1) 취학 전후 자녀 기초학력 지원

취학 전후 자녀 기초학력 지원으로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 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지원을 꾀했다. 그리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학력 저하 방지 방과 후 멘토링과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가)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교육청과 지자체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영유아지원금이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주민 자녀들은 가정 보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 후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시도 지자체는 이주민 자녀의 영유아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재원의 이유로 이주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방정부는 취학 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다양한 전인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나)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지역교육청은 한국어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다중 언어 체계 간 혼돈 및 간섭으로 인한 문해력 발달 지연과 한국어 능력 부족이 영어 학습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대부분 세 가지 언어 이상의 다중 언어 체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학생들의 언어 습득의 특성, 언어의 사용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발달과정을 보일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학습부진은 학습부진이 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언어체계와 언어 습득과정에서 교사의 이해를 돕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를 수준에 맞춰 지원하고 이와 함께 학교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지원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입학 전·후에 기초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이주배경 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적응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기초학력의 저하로 이어져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다. 취학 전·후 자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는 사업의 총괄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지역교육청은 학습대상자 모집과 선발, 해당 구청은 학습대상자 모집의 총괄과 사업 전반의 추진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취학 전의 이주배경자녀 대상 전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학교 적응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학력 저하 방지 방과 후 멘토링과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정부, 그리고 마을과 전문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는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큼이나 학교 밖의 교육여건도 중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와 정서,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곳은 학교보다 오히려 ‘학교 밖’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 아이들의 거주 형편은 열악한데다 부모는 일터에 가서 없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교육받을 공간도 부족하다.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한 교육문화공간과 교육과정 운영해야 한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은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가) 기초학력 저하 방지 방과 후 멘토링 지원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저하 방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등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학교 기초질서의 어려움, 언어의 미숙으로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방과 후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 방지를 위해 마을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멘티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방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학교 안내를 통해 모집하고, 수업 참여 의지는 높으나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추천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초등학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의 고등학생과 1:1 매칭시키고, 중고등학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근의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

지역교육청은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교과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 설계, 지원해야 한다.

교과 내용 지식보다 체험과 활동 중심 학습 소재로 구성하여야 한다. 학년과 학교급이 달라도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는 공동의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교사는 지역으로부터 학생들이 활용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에는 역사, 문화, 축제, 인물, 지역 현안, 지역 특색 등이 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 시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삶과 결부된 살아있는 배움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한 다각적인 활동에 대한 기획, 관리, 지원, 평가 등의 주체가 개별 단위학교가 되기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련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 협의회나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다)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

지방정부는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이 가지는 교육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는 지역의 존속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써, 학령기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의 중요한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주민들의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성장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보조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에 맞게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언어교육은 물론이고 직업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지자체는 학습대상자 모집의 총괄과 사업 전반의 추진을 담당해야 한다.

〈표 Ⅳ-3〉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전략과제 및 지원로드맵

전략과제	세부과제	지원로드맵		
		단기	중·장기	수행기관
③ 취학 전후 자녀 기초학력 지원	① 영유아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		지방정부
	②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	지역교육청
	③ 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지원	○		지방정부
④ 학교 적응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① 기초학력 저하 방지 방과 후 멘토링	○		지방정부
	② 지역자원 연계 교과 과정 운영		○	지역교육청
	③ 학부모를 위한 재정착 보조프로그램 지원	○		지방정부

다.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방안

1)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과 또래 관계 사회성 발달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미숙한 언어로 인한 학교 부적응의 문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문제, 진로 문제, 학력 저하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모국어 심리상담 지원

지방정부는 모국어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소통 문제는 심각하다. 이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학습부진의 누적보다 더 큰 문제는 정서적인 것이다. 무기력과 좌절감, 그로부터 형성되는 자존감 저하와 상처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민주시민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축적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 안에도 진로 상담부가 있고 진로상담 센터도 있다. 현재 시스템에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에 맞는 모국어 상담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이 다수인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상담사를 배치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파견을 하는 방법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

나)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배치 및 역량 강화

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실시간 모국어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아동 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때 다수의 언어뿐만 아니라 소수의 이주배경청소년도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 배

치되어 있는 이중언어 강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연수나 진로상담 연수를 통해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 또래 상담 지원

지방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또래 간 정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래 상담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또래 관계 역량을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또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원

지역교육청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학생 주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중심의 또래 상담, 학생 주도 자치회 운영 등 학생 활동을 격려해야 하고 운영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생활교육 적용을 위한 교사의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시민성이 함양될 수 있다.

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지역교육청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지원을 위해 교우 관계를 고려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첫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또래관계 관련 지도 요소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프로젝트형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의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나) 사회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기회 제공

지역교육청은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사회 참여 활동이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의 자치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 지원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생회, 동아리, 방과후 동아리 활동 등 교내·외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 지원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회의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삶과 연관된 교육을 진행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학습된 지식, 가치 태도들이 내재화된다.

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동력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표 IV-4〉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전략과제 및 지원로드맵

전략과제	세부과제	지원로드맵		
		단기	중·장기	수행기관
⑤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	① 모국어 심리상담 지원	○		지방정부
	②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배치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역교육청
	③ 또래 상담 지원		○	지역교육청
⑥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지원	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지방정부
	② 사회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기회 제공		○	지방정부
	③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지방정부

라.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

1)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다문화친화적 학교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이라 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와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해 학교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문화 친화적 환경으로 바뀌어야 함을 일컫는다. 지역사회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학교를 지원하면서, 학교 밖의 교육생태계를 구성해주어야 한다. ‘학교 밖’이 살아야 ‘학교’도 산다.

가) 교사 및 종사자 다문화교육 확대

지방교육청은 다문화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및 종사자 다문화교육 확대하여야 한다. 그간 다문화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다문화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함을 말한다.

나)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역교육청은 학교 교사, 학생, 종사자 대상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언어, 성, 계급, 인종, 장애 등 세부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인식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다) 포용과 배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학생 대상 포용과 배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한다. 방법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상호문화이해교육이다.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보고 문화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하여야 한다. '상호(inter)'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 간의 만남과 접촉,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역지사지 어울림 교육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

지역사회 기반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 차이를 인식하는 인지적 요인과 타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및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 가능성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인종, 국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뜻한다.

가) 다문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문화적 시민권, 즉 문화적으로 다름 권리, 다름에서 오는 차별에 저항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등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세대주기별에 맞는 다문화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과 학교들을 포괄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고 섬세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형식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운동체계여야 한다.

나) 선주민·이주민 교류프로그램과 소통공간 마련

지방정부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야 한다. 마을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차이로 인해, 혹은 언어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언어 소통을 능가하는 소통의 수단이다. 지방정부는 선주민과 이주민 가족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캠프 진행,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마을 축제, 요리 동아리, 책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반상회,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방정부는 다양성과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별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국의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동체별 과업 수행비 지원하고,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며, 공동체간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촘촘히 점검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표 Ⅳ-5〉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지원 전략과제 및 지원로드맵

전략과제	세부과제	지원로드맵		
		단기	중·장기	수행기관
⑦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① 교사 및 종사자 다문화교육 확대	○		지역교육청
	②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지역교육청
	③ 포용과 배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역교육청
⑧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	① 다문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지방정부
	② 선주민·이주민 교류프로그램과 소통공간 마련		○	지방정부
	③ 국가별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지방정부

참고 문헌

-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입국 후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김기영. (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제경험과 증층적 정체성: '고려인' 청소년들의 삶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30.
-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도혜. (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05-333.
- 김영란 외(2020). 서울시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보고서.
- 김진아, 이형실.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2), 149-159.
- 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부.
-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봉수, 선곡유화, 이영선. (201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 고찰: 학교 적응 및 지원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40, 61-91.
- 배은주.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서은주. (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연구 - 생태체계모델과 위계적다중회귀분석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79-202.
- 서종남. (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 FGI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
-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송민경, 김진원.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입국 전·후 삶에 대한 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8, 103-139.
- 신난희. (2019).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1, 7-38.
- 신은주. (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67-78.
- 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양계민. (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 격차 해보방안연구: 통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인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1, 385-412.
- 유진이, 김소형.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1), 3-46.
- 이민경, 이수정. (2013).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 분석: 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3(1), 144-177.
- 이수인, 이순미, 최지훈(2019).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전북연구원
- 이용교. (200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청소년복지연구*. 9(1), 1-16.
- 이은정, 이용승. (2015).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OUGHTOPIA*. 30(1), 93-134.
- 이인재.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인천연구원.
- 이정섭, 왕금미.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동향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49-77.
- 이진석. (2014).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시민성 탐색. *시민교육연구*. 46(4), 79-105.
- 이현주, 차윤경. (2019). 이주배경 가정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여부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2(1), 147-168.
-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277-297.
- 정수정, 최순중. (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 조형숙. (2018).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지원방안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412-422.
-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조혜영. (202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지형 변화와 교육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청소년시설환경* 18(4), 27-42.
- 최대희. 2014. 중도입국청소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다문화와 인간*. *다문화와 인간*, 3(2), 133-165.
- 최영미 외. (2022). 경기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재)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